

쇼린엔(松林苑)

쇼린엔은 『속일본기』의 덴표년간(天平年間)에만 등장한다. 『속일본기』에 따르면 쇼린엔에는 궁이 존재하고 천황이 5위 이상의 군신을 모아 향연을 하는 장소였다. 또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쏘 정도의 넓은 공간으로 천황이 이용하는 중요한 장소였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쇼린엔이 어디에 어떻게 존재했는지는 알지 못한다.

쇼린엔의 존재가 인식되기 시작한 계기는 1972년에 이루어진 효탄야마(瓢箪山)고분의 사적 정비에 따른 조사이다. 효탄야마 고분의 동쪽에서 축지담(築地塀)터로 보이는 남북으로 뻗은 도루이(土塁; 흙으로 쌓은 작은 성채)모양의 언덕을 가시하라고고학연구소의 조사 담당자가 확인한 것에서 시작된다. 1978년 시오즈카(塩塚)고분의 사적 정비조사에서도 도루이 모양의 언덕 북쪽 연장 부분이 확인된 것을 보고 받고 가시하라고고학연구소가 주변의 본격적인 답사를 시행했다. 이 조사로 도루이 모양으로 남은 축지담의 범위를 확인하고 유물의 산포 상황으로 유구의 분포범위를 추측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축지담으로 둘러싸인 나라 시대의 넓은 공간의 존재가 확인되었고 헤이조궁에 복접하는 입지나 지형, 남아있는 일정한 기준으로 구획된 토지(遺存地割), 지명 고증 등으로 이 공간이 궁이 소재하는 내곽을 갖춘 쇼린엔이라고 생각되었다.

추정된 쇼린엔은 헤이조궁의 북쪽 담에 접하고 서쪽은 축지담터가 있는 효탄야마 고분의 동쪽까지, 동쪽은 인공적인 직선으로 이루어지는 미즈가미이케(水上池) 동쪽 물가까지로 추측되고 동쪽 경계는 히시아게(ヒシアゲ) 고분의 후원부에서 북쪽으로 지나간다고 상정되었다. 북쪽은 지형을 고려해서 능선 줄기로 상정되었다. 그 범위는 동서1.1km, 남북1.3km에 이르고 거의 중앙을 우타히메(歌姫) 가도(街道)가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다.

그 후에 축지담터를 시작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고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내곽으로 추정되는 우타히메 가도의 서쪽은 미고지(微高地)로 유구도 많고 쇼린엔의 중심 부분이었던 것이 확인되고 있다. 또 고분의 주호를 원지(苑池)로써 재이용한 것도 확인되고 있어 쇼린엔의 실태가 파악되기 시작했다. 한편 동쪽 경계부로 생각되었던 미즈가미이케의 훨씬 동쪽에서도 근년 나라 시대의 유구가 잇달아 확인되고 있어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고나베(コナベ)고분의 제107차 남서쪽 모퉁이 부분 조사에서는 원지로 보이는 직선적이고 갈고랑이 모양으로 굴곡하는 부석(敷石)상의 호안이 발견되었고 거기에는 헤이조 천도 후 얼마 되지 않은 시기의 도기와 기와가 다량 폐기되어 있었다. 또 고나베 고분의 동쪽 인접 부분에서도 부석유구가 확인되고 있어 고나베 고분의 주변은 나라 시대 전반에 원지로써 이용된 장소였을 가능성이 커졌다. 단, 각 지점의 이용 시기는 매우 단기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빈번하게 새로운 장소(원지)를 마련해서 향연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제107차 조사에서 검출된 부석 유구의 이용 시기는 『속일본기』에 쇼린엔이 등장하기 전일 가능성이 높고 쇼린엔의 조영 시기나 성격, 범위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도 주목된다.